



## 예거 르쿨트르의 새로운 타임피스, 리베르소 트리뷰트 크로노그래프

리베르소의 기원에 경의를 표하는

스포츠 컴플리케이션

- 예거 르쿨트르 매뉴팩처에서 설계와 개발, 제작의 모든 과정을 거쳐 탄생한 칼리버 860: 뒷면 다이얼에 레트로그레이드 미닛과 세컨드 타임존 디스플레이를 갖춘 크로노그래프
- 시대를 초월한 우아함과 모던함이 조화를 이루는 독창적인 크로노그래프

1931년에 탄생한 리베르소는 스포츠를 위해 특별히 제작된 최초의 손목시계 중 하나였습니다. 회전형 케이스는 폴로 경기에서 케이스를 보호하기 위한 디자인이었지만 출시 직후 스포츠 분야를 뛰어넘어 수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사로잡았습니다. 2023년, 예거 르쿨트르는 리베르소 트리뷰트 크로노그래프를 새롭게 공개하며 스포츠 컴플리케이션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크로노그래프와 리베르소의 근원에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190여년간 이어져온 예거 르쿨트르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새롭게 개발한 칼리버 860은 1996년에 출시된 최초의 리베르소 크로노그래프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한 독창적인 칼리버입니다.

### 워치메이킹 전통과 모던한 디자인을 결합한 대조적인 다이얼

시계의 앞면 다이얼은 바통형 아워 마커, 도피네 핸즈, 페리페럴 슈망 드 페르(chemin-de-fer) 미닛 트랙과 같이 리베르소 트리뷰트 라인을 대표하는 특징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선레이 브러싱 처리된 우아한 표면은 그 안에 감춰진 정교한 기계 메커니즘을 예측하기 어려울 만큼 간결해 보이지만 와인딩 크라운 양쪽에 비밀의 증거가 되어주는 크로노그래프 푸셔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리베르소 트리뷰트 크로노그래프는 스틸과 핑크 골드 소재로 선보이며, 각각 다크 블루와 블랙 스트랩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차가운 느낌의 스틸 케이스는 티타늄 옥사이드 레이어를 입히는 혁신적인



ADL(원자층 증착) 프로세스를 거쳐 완성한 섬세한 블루 그레이 컬러의 다이얼과 절묘한 컬러 조화를 이룹니다. 반면, 은은한 광채를 발산하는 블랙 다이얼은 깊고 그윽한 핑크 골드 케이스와 강렬한 대비를 보여줍니다.

시계 케이스를 돌리면 나타나는 뒷면 다이얼을 통해 정교하게 제작된 크로노그래프 메커니즘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다이얼은 크로노그래프의 역동적인 움직임과 정교한 무브먼트의 형태를 그대로 드러내기 위해 스킨레톤 처리되었으며, 꼬뜨 드 제네브(Côte de Genève) 장식의 브릿지를 통해 시계 전체에 흐르는 고유한 철학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크로노그래프 세컨즈와 미닛 트랙은 블랙 컬러로 강조되어 가독성을 높여주는 동시에 블루 스크루는 블루 컬러의 크로노그래프 핸즈와 동일한 컬러로 완성되어 무브먼트와 장식이 자연스럽게 균형을 이룹니다. 또한, 칼리버 바로 위 공중에 떠 있는 듯한 세컨드 타임 디스플레이(각면 처리된 바통형 인덱스와 슈망 드 페르 미닛 트랙)는 시각적 깊이를 더해줍니다.

### 컴플리케이션에 대한 풍부한 유산과 기술력

리베르소 트리뷰트 크로노그래프는 1996 년에 출시된 리베르소 크로노그래프를 재해석한 타임피스입니다. 초기 피스는 10 년의 기간 동안 특별히 개발된 6 피스의 리베르소 중 하나였으며, 각각의 타임피스는 위대한 클래식 워치메이킹 컴플리케이션을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본 걸작이었습니다. 리베르소 탄생 60 주년을 맞이한 1991 년을 기점으로 공개된 타임피스들은 쿼츠 파동 이후 기계식 워치메이킹의 새로운 도약을 알린 상징적인 모델로 자리 잡았습니다.

1996 년에 출시된 리베르소 크로노그래프의 무브먼트인 칼리버 829 는 직사각형 케이스에 맞추어 제작된 예거 르쿨트르 최초의 크로노그래프 무브먼트이자 포스트 쿼츠 시대에 개발된 첫 번째 매뉴얼 와인딩 크로노그래프이며, 이는 그랑 메종의 획기적인 창의성과 기술력을 입증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 칼리버 860: 독창적인 크로노그래프

예거 르쿨트르의 정교한 칼리버의 풍부한 역사에 새로운 한 획을 그을 리베르소 트리뷰트 크로노그래프는 매뉴얼 와인딩 크로노그래프 무브먼트인 예거 르쿨트르 칼리버 860 으로 구동됩니다. 예거 르쿨트르 매뉴팩처에서 설계, 개발 및 제작의 모든 과정을 거쳐 탄생한 칼리버 860 은 원형의



크로노그래프와 시간 디스플레이를 직사각형 케이스 안에 배치하되 가독성을 유지해야 하는 까다로운 도전에 대한 창의적인 해답을 제시합니다. 무브먼트 형태도 케이스의 형태에 맞춰 제작해야 한다는 예거 르쿨트르의 철학에 따라 칼리버 또한 직사각형으로 제작되어야 했습니다. 그 결과 다이얼 상단에 커다란 크로노그래프 세컨즈 디스플레이를 배치하고 다이얼 하단에 반원형 30분 레트로그레이드 인디케이터를 장착하여 아름답게 균형 잡힌 독창적인 다이얼 레이아웃을 완성했습니다.

시간당 28,800 회 진동하는 칼리버 860은 무브먼트의 전체 두께를 줄이기 위해 널리 사용되는 수직 클러치 대신 수평 클러치가 장착된 컬럼 휠 크로노그래프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무브먼트는 두 세트의 핸즈를 움직여 앞면 및 뒷면 다이얼 모두에서 시간과 분을 표시합니다. 실제로 시계의 양면 페이스에서 적절한 시계 방향으로 시간을 표시하려면 두 세트의 핸즈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칼리버 860은 52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제공하는 동시에 두 개의 시간 인디케이션과 결합된 레트로그레이드 크로노그래프의 높은 에너지 요구량도 수용합니다. 직사각형 무브먼트는 구성품만 최소 300개 이상인 정교한 기계 장치이지만 두께가 12mm 이하인 케이스 안에 배치해야 하는 예거 르쿨트르의 디자인 철학도 준수합니다.

### 타임피스에 스타일을 더하는 파글리아노 컬렉션 스트랩

각 시계는 간편하게 스트랩을 교체할 수 있는 버클이 장착된 두 가지 스트랩(캔버스와 가죽 혼합 소재 및 전체 가죽 소재)이 함께 제공됩니다. 최고급 부츠 제작사로 유명한 아르헨티나의 까사 파글리아노에서 디자인하며 시계에 스포티한 감성을 더해줍니다.

### 상세 정보

#### 리베르소 트리뷰트 크로노그래프

**케이스:** 핑크 골드 750/1000(18 캐럿) 또는 스틸

**크기:** 49.4 x 29.9mm, 두께 11.14mm

**칼리버:** 매뉴얼 와인딩 예거 르쿨트르 칼리버 860

**기능:** 양쪽 다이얼의 시, 분, 30분 레트로그레이드 카운터를 갖춘 크로노그래프



**파워 리저브:** 52 시간

**앞면 다이얼:** 선레이 브러싱 처리된 블랙 또는 블루 그레이

**뒷면 다이얼:** 스키텔론

**방수:** 30m

**스트랩 패키지:** 파글리아노 컬렉션 송아지 가죽과 캔버스 소재의 스트랩과 송아지 가죽 소재의 추가 스트랩

**제품 번호:** 핑크 골드 Q389257J, 스틸 Q389848J

---

#### 황금 비율 소개

예거 르쿨트르는 아르데코 스타일이 한창인 1931 년, 황금비율에 기반하여 리베르소의 오리지널 디자인을 선보였습니다. 미적인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비율로 알려진 황금비율은 그리스 글자  $\phi$  (파이)로 표현되거나 1.618 로 정의되는 신비로운 숫자입니다. 위치메이킹 분야에서 예거 르쿨트르의 리베르소는 황금비율을 잘 보여주는 타임피스입니다. 이후 90 년이 넘는 시간 동안 리베르소의 케이스는 다양한 형태로 재해석되었지만, 오리지널 디자인의 비율만은 컬렉션을 정의하는 상징으로 남아 오늘날까지도 '리베르소 = 황금비율'이라는 공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